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
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6-7)

이 얼마나 기막힌 말씀인지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그랬던가요.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을 주장하셔서 넘치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각, 곧 이성을 뛰어넘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서 오늘도 빛의 자녀
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와 후원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강건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넉넉한 사랑과 동참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저희가 이곳에서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여러 방면
으로 모색을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저와 아내는 각각 2주간 OM 선교회 런던센터의 훈련 및 아웃리치 프로
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무슬림들이 주로 밀
집한 런던 북부 여러 곳을 돌며 활동하였고, 이를 통해 현지의 Spiritual mapping과
현장 know-how 습득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거리에서 만나는 무
슬림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기네 종교의
가르침에 매몰되어 한사코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 복음과
그리스도를 철저히 왜곡한 그들의 도그마, 서구문화 및 기
독교사회에 대한 혐오와 자기네의 순수성에 대한 근본주의
적 집착, 뭔가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슬
람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종교/
사회구조 등 겹겹이 쌓인 장벽을 절감했습니다. 때로는 피
부로 다가오는 적의에 내심 움찔하기도 했습니다. 팀 동료

중 두 명의 형제는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슬림과 얘기하다 보면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예 논쟁을
목적으로 대화에 응하는 무슬림도 있습니다. 어차피 무슬림과는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축복의 말을 하고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영혼의 이슬 같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월말부터 온누리교회 출신 선교사 임장백
형제가 저희 집에 기거하게 되었으며,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유학 온
한 형제도 때때로 같이 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습니다.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몇몇 지역, 웬블던(Wimbledon), 모던(Morden), 투팅(Tooting)에 가서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접근을 시도하고, 아내와 함께 door-to-door 전도를 시도합니다.

땅끝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서 있는 곳

그러나 무슬림에게만 한정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이 구별할 수도 없거니와, 누구든지 복음은 들어
야 하고 구원으로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에 극도의 무관심을 보이는 무리인 백인들, 그리스도
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진 부류
인 무슬림들을 주로 만나게 되지만, 흑인들과 동남
아, 서남아, 중국인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런던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300개가 훨씬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터내셔널입니
다. 이 국제적인 땅에 주님께서 국제적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링교회



아내는 9월부터 런던 시내 북부에 있는 한인교회인 일링교회에서 선교담당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링(Ealing)에는 중동뿐만 아니라 서남아, 동남아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와서 어학원을 다니는 청년들이 적잖습니다. 저희의 사역 방향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 교회를 두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한인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역에 흩어진(diaspora)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케 하시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링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갖도록 깨워서 그 지역에 복음의 깃발이 나부끼고 선교의 횃불이 타오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직접 전도를 시작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선교학 공부

저는 올 가을부터 Birmingham Christian College에서 2년 과정의 선교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학대학이 철학화, 자유주의화된 영국에서 복음주의 학풍을 고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의 이론과 실재를 깊이 배우며 학생들 서로간에 많은 교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Alpha Course 및 제자양육

아울러 영국 교회에서 실시하는 Alpha Course(불신자나 초신자를 초청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한국인 그룹 리더로 12월까지 4개월간 섬기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국인 교민 한 명과 대학생 한 명을 제자양육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는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이 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런던 북서부에 있는 Westminster University의 School of Media, Arts & Design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을 놓고 기도 중입니다. 현재 그 학교에 복음사역자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한 학생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 ...아프리카 당나귀

중국 그리스도인 霍의 간증서인 “하늘에 속한 사람(The Heavenly Man)”과 아프리카인 스티븐 룽구 선교사의 간증서인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Out of the Black Shadows)”가 7~8월에 보름 간격으로 홍성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두 책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자극과 감동을 주고 역동적인 신앙을 일깨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성, 수빈

동성이와 수빈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영어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애로가 있지만 시일이 더 지나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별 무리가 없이 적응한 단계입니다. 올 가을부터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세운 공립 학교로 전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어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성도 使者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13)

1.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도록
2. 일링교회 사역, 노방/축호 전도, Westminster 대학사역의 기쁨이 다져지고, 돕는 이들과 합심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가도록
3. 선교학 공부와 사역을 균형 있게 해 나아가도록
4. 아이들이 굳건한 신앙 속에서 성장하며 학교생활을 잘 해내도록
5. 사역의 일환이자 생활의 수단으로서 가디언 일이 잘 마련되도록

감사합니다

저희 위해 항상 중보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하오며,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르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고석만 · 백경아 · 동성 · 수빈 드림

주소: 27 Cavendish Road, New Malden, Surrey KT3 6DE, U.K.

전화: +44-(0)20-8949-4932 (집), +44-(0)7835-102-168 (핸드폰)

E-mail: simeonko@naver.com (sukmanko@yahoo.com), kaybaek@empal.com